

이기백, “高麗 初期 五代와의 관계”, 『한국문화연구논총』 1집, 1960.

- 고려 초기: 고려가 중국 오대의 여러 왕조 및 북방의 거란과 鼎立한 시기
  - 중국의 정치체도가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에 이식되기 시작함

## 1. 太祖의 統一과 對中 關係 : 태조~정종대까지

- 왕건의 고려 건국(918) 시기: 중국에서 당이 망하고 後梁 건국(907-923), 이후 宋이 서서(960) 천하통일하기까지 왕조의 난립과 교체가 계속됨
  - 태조때 12회 사절파견(8년, 9년, 12년, 15년, 17년, 18년<2회>, 19년, 20년, 22년, 24년, 26년)
  - 반면 중국에서 사신이 2회(16년, 22년) 음: 후당과 후진이 고려왕의 책봉을 위한 최소한도의 필요에 응한 것임. 또한 각기 2회에 걸쳐 文士와 승려가 음
  - 초년에 사용한 고려의 독자 연호인 天授는 16년 後唐의 사절이 와서 왕을 책봉함과 동시에 후당 年號로 대체됨. 후당이 망하고 後晉이 선 뒤에 후진 연호를 사용함
- 조공: 일종의 공적 무역.
  - 태조 17년에 2회에 걸쳐 고려인이 와서 교역한 사실 기록함
  - 고려측의 무역에 대한 욕구가 컸으며, 사행의 방물 조공은 무역의 의도를 내포함
- 고려가 後晉에 質子(인질) 파견함: 외교적 교섭 관계의 중요성
  - 吳越로부터의 중용(후백제를 통한 간접적임)에 의해 왕건이 견훤과 서신을 교환하고(태조 10년과 11년), 화해를 모색함
  - 외교적 측면: 대외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지원을 얻고자함.
- 중국과의 통교가 고려의 제도상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음
  - 태조의 十訓要의 제4조에서 반드시 당의 문물제도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함
  - 태조가 관직 設官 分職시 신라와 泰封(901년 공예가 건국, 918년 왕건에게 멸망)의 제도를 참조함
- 제2대 惠宗代: 재위 2년간 후진과 사절 내왕이 각 1회씩.
  - 고려에서는 嗣位를 알리며, 중국에서는 새로운 왕을 책봉하는 의례적임.
  - 嗣位를 알림과 동시에 거란을 격파한 致賀를 겸함.
- 定宗代
  - 後漢의 연호를 사용한 것만 기록하고, 사절 내왕에 대해 언급 없음
  - 거란(契丹)과의 관계가 날카로와져서 고려에서 光軍 30만을 조직함

## 2. 光宗의 改革과 後周와의 관계

- 光宗代: 고려가 점차 국내적 안정과 정비를 지향하면서, 이전까지의 대중관계와 양상을 달리함

- 고려부터의 사행이 6회, 후주로부터의 來聘이 4회: 광종 6년 2회, 10년 3회로 특정 연도에 집중됨.
- 후주와의 관계시 의의: 대거란 관계에서 오는 국제적 긴장상태 반영한 듯함. 후주도 거란과 중국과의 대립상태로 혼돈하여서 고려에 압박을 가할 만한 정세에 놓여 있지 못함

#### ○ 후주의 정치개혁의 영향

- 후주에서 투하한 쌍기(雙冀)의 건의에 의해 과거제도가 실시됨
  - \* 後周 世宗은 顯德 2년(광종 6년)과 5년(광종 9년)의 2회에 걸쳐 進士科의 부정한 급제 조치를 힐책하는 조칙(詔勅)을 내림. 顯德 4년(광종 8년)에는 制舉(중국 당나라 때에, 황제의 명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)를 실시하는 조서(詔書)를 내림
- 광종은 投化漢人을 중용함: 쌍기 등. 광종이 투화인에게 높은 관직과 큰 저택을 世臣古家로부터 빼앗아주었기 때문에 조정내 불안한 분위기가 확산됨
  - 과거제도에 의해 신인을 등용하며, 배경이 없는 인물을 등용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꾀함.
- 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투화한인이 큰 역할을 함: 광종 7년 후주의 사신이 온 것을 계기로 백관의 의관을 중국 제도에 따르도록 함.
- 광종대 특정 연도에 집중적인 사절 파견: 개혁이 행해진 바로 전년(광종 10년)에 중국과 가장 교통이 잦았음

#### ○ 후주의 세종은 현덕 원년(광종 5년, 954)에 兵制 개혁을 단행함. 이후 후주와 고려간 빈번한 통교와 인물의 내왕이 고려에 영향을 끼쳤을 것임

- 광종이 지방의 風彩있는 자를 뽑아서 入侍케 함.
- 광종은 초년에는 貞觀의 治를 모범으로 했을 수도 있음
  - \* 貞觀의 治: 중국 당나라 제2대 왕 태종(太宗) 이세민(李世民)의 치세(626~649). 이때의 연호가 정관(貞觀)임. 隋 말기 전국적인 동란과 백성의 피폐 가운데 굳건히 일어서서, 당나라의 國礎를 확립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였음. 율령체제의 정비에 따라 학교·과거도 발달하였음)
- 광종 7년이후 정책이 전환됨. 그 전년도인 광종 6년에 2회에 걸쳐 후주에 사절을 파견함. 이 당시 개혁에는 쌍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임
- 광종의 일련의 개혁정치는 956년(광종 7년)에 시작되어 960년(광종 11년)에 절정에 이름

#### ○ 후주 멸망 宋 건국(광종 11년, 960)이후 고려와 송의 관계

- 광종은 13년에 비로소 송과 통한 이후, 그의 말년(광종 26년)까지 3회(13년, 16년, 23년)의 사절을 파견하였으며, 宋使가 1회(광종 26년) 옴

### 3. 光宗이후 景宗代 宋과의 관계

#### ○ 景宗代: 재위 6년간 사절 파견이 5회(광종 원년, 2년, 3년, 5년, 6년): 단 1개년을 제외하고 매년 사절 파견함. 입학생 파견이 1회(광종 원년), 그리고 宋使의 내빙이 3회(광종 원년, 3년, 4년).

#### ○ 빈번한 사절 파견 : 경제적 이유가 상당히 작용함

- 고려가 송에 보낸 물품으로 方物이라고 표현함. 여기에 良馬, 甲兵, 兵器 등의 무기가 나타남.
- 송의 대거란관계에서 기인하여 필요한 물품들이 고려에 요구됨 : 송의 고려에 대한 외교적, 군사적 욕구가 개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됨.